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 | | | | | |
|----|-----|----|-------------------|----|-----|
| 회차 | 32차 | 일자 | 2021.08.01. 18:30 | 장소 | 온라인 |
|----|-----|----|-------------------|----|-----|

0 성원점검

| | | | | | | |
|------|--------|------|--------|-------|--------|------|
| 간호대학 | 경영경제대학 | 사범대학 | 사회과학대학 | 약학대학 | 예술대학 | 의과대학 |
| ○ | ○ | ○ | ○ | ○ | ○ | X |
| 인문대학 | 자연과학대학 | 통일공대 | 동아리연합회 | 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 계 |
| ○ | ○ | ○ | ○ | X | ○ | 11 |

<개회>

1 단위별 보고

| | |
|--------|---------------------------------|
| 간호대학 | 8/10 간학대회 예정 |
| 경영경제대학 | 특이사항 없음. |
| 사범대학 | 특이사항 없음. |
| 사회과학대학 | 상반기 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 중. |
| 약학대학 | 특이사항 없음. |
| 예술대학 | 특이사항 없음. |
| 의과대학 | 불참 |
| 인문대학 | 특이사항 없음. |
| 자연과학대학 | 특이사항 없음. |
| 통일공대 | 2학기 축제기획단 회의 매주 목요일 밤 10시로 결정됨. |
| 동아리연합회 | 특이사항 없음. |

2 보고안건

1. 총학생회장단 보고

2. 중앙집행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활동보고

| |
|--|
| 중앙집행위원회 |
| (교육자치) 2학기 수강신청 관련 정보성 카드뉴스 발행 예정. 2학기 교양과목 강의계획서 바로잡기 예정. |
| (연대사업) 외부 제휴사업 진행 중. |
| (전략정책) 1학기 총학생회 사업 피드백 설문조사 진행 완료. |
| (홍보소통) 푸양 여름 콘텐츠 준비 중. |

| |
|--|
| 산하위원회 |
| (인권복지) 인권복지위원회 위원 1명 리크루팅 진행 완료. 중앙도서관 열람실 사물함 경첩 수리 진행 중. |
| (장애인권) 배리어프리한 공지 가이드라인 추가 사업 진행 중. |
| (졸업준비) 레인보우스시스템 활용 관련 카드뉴스 게시 완료. 취업사진 관련 외부업체 진행 중. |

3 논의안건

1. 등록금 환불 및 학사 만족도 설문조사 진행 논의

- 설문조사 제작 및 진행 관련 논의
- 관련 이전 논의내용 검토

부총: 화면에 있는 순서에 따라서 논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등록금 환불 설문조사에 대한 논의인데 먼저 이전 논의내용 게시글에 있던 내용을 추려서 가져왔다. 여러 단위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은 일단 등록금 환불 필요성에 대해서 묻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등록금 환불이 필요하다는 답변에 대해서 혹은 개별적인 질문으로 시설이용 만족도, 학사 만족도, 그다음에 비대면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를 묻자는 의견이 있었고 세부 내용은 화면에 나온 것과 같다. 혹시 이전 논의 중에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논의를 진행하겠다. 일단 이전 논의 내용이 이렇게 되고 이 골자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하나 제안드릴 것은 일단 학사 만족도 조사와 등록금 환불을 양측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게 어떤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 현재 의견을 주신 단위 중에 등록금 환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이제 학사 만족도 관련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자 라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단위도 비슷했는데 아예 학사 만족도 조사를 학사 만족도 조사와 등록금 환불 관련 의견 조사를 두 축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떨지 여쭙보고 싶고 예시를 들어드리면 먼저 학사 만족도에 관해서 수업, 시설, 시스템으로 나눠서 조사를 진행한 다음에 그게 첫 번째 큰 문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금 환불의 필요성, 그다음에 지난 등록금 환불 논의와 협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 그다음에 등록금 환불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등록금 환불 외에 학사 운영에 대해 본부에 요구하거나 본부가 이행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크게 두 갈래로 해서 학사 만족도 및 등록금 환불 의견 조사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란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학사 만족도에 대해서 먼저 조사한 후에 그 다음 항목에 등록금 환불 관련 의견을 묻는 식으로 양갈래로 조사를 진행하는 게 어떤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간호.정: 간호대 동의한다.

경경.부: 경경대도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 동의한다.

(이하 동의 의견)

부총: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주셔도 좋다.

통공.부: 공대도 해당 의견 동의한다.

부총: 네 다른 의견은 따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초안을 짜서 오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제 설문지 초안을 제작을 해서 이제 이후에 중운위에서는 카카오톡으로 확인과 피드백을 거쳐서 설문조사를 시행하는게 어떨지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다.

간호.정: 지금 혹시 일정관련 논의를 하는 건지?

부총: 일단은 일정관련 논의를 바로 다음에 하고

간호.정: 네 알겠다.

부총: 일단 제가 설문 초안을 집행부랑 같이 제작을 한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피드백을 거쳐서 설문을 시행하는게 어떤지에 대해서 물었다.

인문.정: 인문대학 결국 그 논의가 3번 논의가 아닐까 싶어서 어쨌든 그 내용에는 일단 동의를 한다.

부총: 그러면 일정을 먼저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일단 설문제작 같은 경우는 2~3일 정도는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빠르게 설문을 시행 한다고 해도 이번 주 중반 정도에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의견을 주실 때 언제부터 설문을 시작하는 게 좋을지, 그다음에 설문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사과.부: 사회과학대학은 적어도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설문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피드백이 완료된 후에 뭔가 수요일부터 토요일 정도까지 설문을 시행을 해야 차주 회의에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사회과학대학 의견에 동의하고 사실 다음 주 중에 설문조사가 시행이 되면 그 다음 주에나 또 논의를 할 수 있어서 사실 지금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곧 있으면 2학기 시작인데 그 내용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회과학대학 의견에 동의한다. 인문대학도 이번주 내에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결과치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다.

부총: 네 그럼 두 단위에서 수요일 정도에 설문조사를 시작하고 월요일에 설문조사의 대략적인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수요일부터 일주일간 설문을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월요일에는 수합중인 설문 결과를 중간에 한번 추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다. 이번 주 수요일 중에 설문조사 초안 검토 및 설문조사를 게시 하고 다음주 수요일까지 설문을 수합을 하되 그 주 월요일에 있는 중운위 회의에서 중간 결과를 가지고 대책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동의하신다면 별도로 의견을 내지 않으셔도 괜찮다.

간호.정: 간호대 의견 내겠다. 설문조사 자체가 만족도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일주일정도 좀 길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앞서 인문대와 사과대에서 말씀해주신 의견대로 가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수요일이면 내일 가안을 올려주시고 피드백을 통해서 바로 시행을 해야되는 일정인 것 같아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빨리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부총: 네 의견 감사하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볼 것이 방금주신 의견까지 수합을 했을 때는 일단은 일요일까지로 설문 기한을 잡고 혹시 그 표본이 모자라다면 설문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설문은 일주일동안 진행을 하고 중간 결과를 가지고 중운위에서 논의를 하는 방향이 있는데 후자는 제가 이미 말씀을 이미 드렸으니까 후자가 아니라 전자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경경.부: 경경대 질의 있는데 설문조사 기간은 일요일까지로 설정했을 때 조사결과를 정리해서 월요일 중운위에서 논의가 가능한지?

부총: 불가능하지는 않다. 엑셀파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경경.부: 경경대는 일요일까지로 우선 기간을 잡는 것에 동의한다.

사과.정: 사과대도 일요일까지 설문조사 하고 월요일에는 취합된 결과를 받고 싶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해당 내용과 동일한 의견이다.

사범.정: 사범대도 해당내용 동의한다.

(이하 동의의견)

부총: 네 감사하다. 그러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설문을 진행을 하고 설문 조사는 되도록 내일 중에 피드백을 받아서 수요일에 게시를 하도록 하겠다.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없으신

거 맞는지? 넘어가도록 하겠다.

2. 신입생 예산 활용 방안 논의

- 투표 결과 검토 및 대책 논의
- 중앙단위 집행방안 논의

부총: 단위별 논의 결과를 한 단위씩 여쭙보려고 한다.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예산 사용에 대해서 저번 회의에서 진행한 것 이후로 마저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출석 순서대로 여쭙보도록 하겠다. 간호대부터 논의 결과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간호.정: 간호대 조금 이따가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부총: 네, 그럼 후순위로 미루도록 하고 경경대부터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경경.부: 경경대는 1순위로 개별단위 집행으로 진행하면 좋겠고, 논의 결과에 따라서 중앙 집행으로 진행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돕바 구매 지원금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 경경대는 오늘로 경경대 돕바 공동구매가 완료되었고 대금결제까지 완료가 되어서 돕바로는 중앙단위로 같이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운위 논의 결과 21학번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즐기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최대한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 이상이다.

사범.정: 사범대도 마찬가지로 최우선순위는 개별단위 집행으로 진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산 활용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정된 바는 없지만, 일단 저희는 1순위는 개별단위 집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 안된다면 중앙 집행 단위라도 21학번 학우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이다.

사과.정: 저희는 우선 주어진 예산 6만원을 모두 사용하였으면 좋겠고, 돕바 진행으로 단운위에서는 모두 의견을 모았고 웬만하면 중앙 집행으로 돕바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사과대 자체적으로 개별단위로 돕바 진행할 수 있겠으면 좋겠다. 이상이다.

약학.정: 약학대학도 개별단위로 집행해서 인당 6만원 지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6만원은 인당 돕바로 해서 지출을 할 계획이다.

예술.정: 저희도 다시 단운위 회의를 한 결과 투표를 할 때는 계획 없음으로 했었는데, 만약에 받게 되면 개별 단위로 6만원으로 받아서 집행하는 게 가장 맞을 거라고 의견을 모았고, 아직 구체적인 행사는 기획하지 못 했지만 단위 안에서 의류를 배부한다던지 그런 식의 방안이 나온 상태이다.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중앙 집행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중앙집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최대한 개별 단위 집행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올해 안에 21학번 대상으로 사용하자 라는 의견이 가장 큰 의견이었고, 그리고 새내기 대상으로 현재 인문대학은 행사진행은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은 돕바 구매로 일단은 의견이 전부 모아졌고 그리고 저희는 일단 개별단위로 집행을 우선으로 생각했다.

자연.비: 자연대 우선 개별단위 집행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자연대 지금 상황이 비대위 체제인데 4개 과의 대표가 모여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다. 그 중에서 2개 과 또한 비대위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2명에서 이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될 거라는 확신이 없어서 개별단위 집행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만약에 집행을 한다면 중앙단위 집행을 원하고, 우선 1순위는 미집행이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통공.정: 공대도 1순위는 개별단위 지급이고 각자 알아서 단대별로 집행하는 걸로 하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오늘 중운위 회의를 통해서 합의되는 쪽으로 유동적으로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다고 의견 취합했다. 이상이다.

간호.정: 우선 단위 내에서는 집행하지 않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로 만약 오늘 회의를 통해서 합의 방향으로 흘러가 집행을 하게 한다면 일단 세 가지를 여쭙고 싶다. 첫 번째가 작년 1학년 신입생 새터 비용도 동결된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부총: 지금 물어보신 것은 저도 확인을 해야 한다.

간호.정: 네, 알겠다. 여쭙본 이유는 만약에 그 비용도 집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같이 하는 것이 현 1,2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쭙보았고, 두 번째는 단과는 달라도 예산을 같게 분배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다. 왜냐하면 행사 특성상 예산만 맞추면 그 안에서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규제하지 않는 방향에 대해서 약간 논의를 해보고 싶었다. 근거로는 단과대 새내기 수 별로 지원금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법인 카드기에 집행에 있어서 돈이 남아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쭙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었다. 세 번째가 사실 새터 비용이 1학기 때 집행되었어야 하는 비용인데 신입생 중에 현재 휴학생들도 포함되는 금액인지를 여쭙고 싶다. 왜냐하면 해당 학생들도 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휴학생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사업 자체가 더 복잡해질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여쭙고 싶어서 가져왔다. 우선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집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단위 의견이다.

부총: 일단 세 가지 질문 주신 건 회의 결과에 상관없이 여쭙보려고 하는데 그 중 두 번째 질문에 단과는 달라도 예산은 같게 분배하는 게 가능한냐는 질문을 하신 게, 단가가 달라도 모든 단위에 예산을 분배할 수 있는지를 여쭙본 것인지 아니면 예산 총액은 같되 인당 단가가 달라도 되는지 여쭙보시는 건지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간호.정: 전자를 여쭙본 것이다.

부총: 이 부분은 주무부서에 여쭙보도록 하겠다. 답변이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의견을 수합했을 때 개별단위 집행 혹은 미집행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또 별도로 말씀드릴 것은 돕바 진행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단위가 많은데, 개별 단위면 상관이 없으나 중앙 집행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돕바 배부를 진행하기는 일단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총학생회에서 돕바 배부를 꽤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명단파악이나 아니면 수급 관련한 문제로 계속 민원이 많았고 돕바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그래서 돕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총학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러면 일단 중앙 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의견을 여쭙보겠다. 그것보다 먼저 일단 개별단위 집행은 합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개별단위 집행을 결정했을 때 집행이 사실상 가능하지 못한 단위가 존재하는 상황이라서 무리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별단위 집행 불가에 대한 의견과 중앙 집행으로 대체하는 안에 대해서는 각 단위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로 의견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경경.부: 경경대 의견 내겠다. 저번 회의에서 개별단위 집행을 원하는 단위는 개별 단위로 행사나 기념품지급을 진행하고 나머지 단위는 중앙단위로 돕바 지원을 진행하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도 문제가 있을지 여쭙보고 싶다. 아까 부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돕바를 중앙단위로 진행할 경우에 총학생회 측에서 부담이 있어서 어려울 수 있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일정부분 단과대에서 부담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한다. 돕바 업체 선정과 같은 그런 단계는 총학생회에서 도움을 주시고 각 단위의 분량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건 각 단위 내에서 집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그래서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

부총: 해당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요구하는 단가 통일의 문제나 그런 게 된다고 하면 절차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개별단위 집행이 어려운 단위만 중앙에서 예를 들어 돕바를 배부한다 했을 때는, 주치를 정확히 어디로 두느냐의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 총학생회를 주치로 둔다고 하면 총학생회가 일부 단위의 사업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꼴이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도 난처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후 실무에 관해서 개별 단위에서 전담을 하게 된다면, 개별 단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 업무상으로는 다를 것이 크게 없다는 생각도 있어서 해당 단위의 의견이 크게 변함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다. 일단 제 의견이고, 이에 대해서 다른 단위에서 달아주실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간호.정: 우선 현실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단위가 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합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합의를 봐서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논의 방향이 자꾸 합의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 단위라던가 부총학생회장님 의견 또한 궁금해서 여쭙는다.

부총: 저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동감을 하고, 일단은 제가 볼 때에는 개별단위 집행에 관해서는 아예 논의를 못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중앙 집행은 제안 사안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아예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일단 저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한 사업을, 예산 총액을 갖다가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예산 부서에 처리를 넘기는 방안이 있고, 세 번째는 새내기 관련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되 다른 용도로 예산을 이관해달라고 선요청하는 방안으로 세 개가 있을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간호대 의견에 동감을 하는 것은 일단 단위별로 어떤 실무를 맡는 식의 예산 집행은 지금 합의할 기틀이 없기 때문에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 사용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에서 예산 총액을 한 사업에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쓰지 않거나 두 가지 방향만 있다고 생각이 된다.

경경.부: 경경대도 말씀드리자면, 간호대에서 말씀하셨듯이 아예 현실적으로 진행 불가능하다고 말씀해주신 단위가 있기 때문에 간호대 입장에 동의를 하고, 그 전에 논의를 시작할 때 부총학생회장님께서 중앙단위로 진행했을 때의 경우를 말씀하셔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의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다. 중앙단위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도 합의하거나 그래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단위로 진행한다면 하더라도 단위 내에서 중앙단위로라도 진행 불가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금 부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두 가지 방안 중에는 경경대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방안처럼 아예 사용을 안 하는 방안보다는 중앙단위로라도 활용하기를 원한다.

사과.정: 사과대 경경대 부학생회장 의견에 덧붙이자면, 저희가 지난 회의 때 의견을 냈던 단위이다. 중앙단위에서 돕바 진행을 가능하신 단위, 그리고 자과대나 간호대처럼 현재 예산 집행이 어려우신 단위는 중앙단위에서 돕바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경경대처럼 따로 새내기 대상 사업을 꾸리거나 다른 계획이 있으신 단위는 해당 사업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드린 단위인데, 저희도 여전히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최선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부총학생회장님께서 아까 중앙단위 차원에서 돕바를 진행하는 것에 그런 실무적인 문제들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단과대 차원에서 서포트를 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 상황에서는 사실 중앙단위의 도움을 받아서 돕바와 같이 중앙단위 차원에서 묶일 수 있는 단위들은 중앙단위 차원에서 묶여서 돕바 진행을 하고 나머지 단위들은 개별 집행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한다. 사실 인당 6만원이라는 예산이 21학번 전체를 대상으로 봤을 때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거니와 그럼에도 동시에 지금 비대위라서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단위가 있다는 두 가지 점을 다 고려했을 때는 이 방식이 최선이 아닐까 하는 의견이다. 이상이다.

부총: 다른 단위도 예산 사용에 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 방금 의견에 대해서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예산 사용 방향에 대해서 차이가 생기는 안은 지금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개별 단위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데는 집행을 하고, 아니면 중앙단위로 묶이고 하는 것이 일단은 단위마다 활용 방향성 자체의 차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물도 단위별로 굉장히 차이나 차별이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 단위만 중앙단위를 거쳐서 한다고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중앙단위가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일부 단위가 단위별로 실무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없어지지만 남은 일부 단위에 한해서만 공동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어쨌든 단위별로 실무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은 똑같아진다고 생각한다.

약학.정: 약학대학 질의 있다. 중앙 집행으로 예산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제안 사항으로 메타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메타버스로 하는 거에 대해서 총학 집행위원회 내에서는 호의적인 편인지?

부총: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집행위에서 논의한 주제는 아니고 예산 사용에 관여되어 있는 학생지원팀에서 관련 의견을 전달해줘서 그냥 의견 문의하는 차원에서 가져온 이야기였다. 이 내용의 요지는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으로 학교 캠퍼스를 그대로 구현하는 데에 새터 예산에 가까운 비용이 소모가 되는데, 그 주무부서의 의견은 신입생 예산 등을 활용을 해서 온라인에 캠퍼스를 아예 구현을 한 다음에 각 단위별로 그 플랫폼 안에서 축제나 새내기 행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비대면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영구적인 플랫폼으로서 그것을 활용해보자 라는 의견을 전달해줘서 이에 대한 중운위 의견을 여쭙고자 한 거고, 만약에 저희가 중앙 단위로 집행하기로 결론이 난다고 하면 이 방안을 제안드릴 생각이었다.

경경.부: 경경대도 질문이 있는데 총학 측에서는 중앙단위로 진행했을 때 총학에서 부담하실 수 있는 사업 진행 여력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다. 방금 말씀하셨을 때, 부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주셨을 때, 일부 단위는 중앙단위로 하고 일부 단위는 개별로 진행했을 경우 그 중앙단위로 진행하는 일부 단위가 실무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개별로 했을 때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는데 중앙단위로 했을 때도 분명히 각 단위가 실무적으로 조금씩 참여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부총학생회장님께서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 정도까지 진행했을 때에 중앙단위로 총학 측에서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부총: 일단 이 주제에 대해서 집행위와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합의된 배경 같은 것을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린다. 제가 수치화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어쨌든 신입생 예산 같은 경우는 총학생회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지원한다 해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밖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드린 의견에 조금 더 보충을 하면 일단 어쨌든 다 같이 개별 사용을 하거나 중앙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단위의 이름을 걸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일부 단위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 일부 단위는 개별로 하고 일부 단위는 모여서 한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여전히 그 단위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은 똑같고 그런 실무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개별단위로 알아서 합시다하고 합의를 이루는 거 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것이다.

경경.부: 답변 감사하다.

통공.정: 공대 학생회장 의견 있다.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의류 배부 같은 걸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21 대상으로만 오기 때문에 20학번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라고 걱정의 말을 사전에 드린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하기 힘든 부분이고,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른 부분인데, 저는 이걸 그냥 이대로면 안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대표자분들은 액수가 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학생들에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자꾸 쓰려고 하시는 건데, 자꾸 겹돌게 하는 것 같고 뭔가 폭탄 돌리기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이럴 거면 그냥 아예 안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건 차라리 이 예산을 총 축제에 가져다가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건 또 총학이 집행할 수 없다 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생각을 그만뒀다. 이상이다.

부총: 저희 축제 예산을... 제 말씀의 요지는 저희가 아예 그 예산을 건들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중앙단위나

개별단위의 이름을 한 군데라도 걸고 하는 행사여서 총학생회가 중재의 역할을 하기에는 애초에 신입생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난처하다는 말씀이었고 방금 축제를 예시로 들었는데 축제가 아니라 아예 하나의 사업에다가 그 예산을 다 투자한다고 하면 그건 개별 신입생에 대한 예산 사용,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실무까지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공대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맞다. 어떻게 쓰고 싶은데 쓸 방법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래서 논의도 계속 도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예시로 나와 있는 메타버스를 한다라고 하면 그 돈으로 그냥 그 돈을 업체에다가 맡겨서 플랫폼만 구축하고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찾거나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집행을 하지 않거나 두 개 밖에 선택지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에 관해서 의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간호.정: 간호대 의견 드리자면 집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신입생 새터 비용의 행방 관련해서 알게 되신다면 그 예산 또한 혹시 넘어갔는지 되게 궁금해가지고 그 부분 좀 빨리 알아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번 신입생 새터 비용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

사과.정: 사과대 말씀드리면 20년도 신입생 예산과 관련해서는 20년도 등록금 환불 재원으로 활용되었다고 저희가 예전에 중운위에서 여쭙봤을 때 총이 답변 주셨었다.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다.

부총: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간호.정: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입생 새터 비용으로 대상이 1학년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선택한 결과 동결이 된다면 다른 쪽으로 쓰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동결을 계속 하는 것이 어떨지 주무부서에 여쭙볼 때 같이 함께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인문.정: 인문대학 질의가 있는데, 동결을 했을 때 그 예산이 내년에 21학번 새내기를 대상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저희는 의문이라서 올해 쓰자 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학교 측에 한번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은 그 동안의 학교 본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예산을 보존시켜서 내년에 넘길 때 그 돈이 과연 온전하게 남아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올해 안에 쓰자 라는 의견이 많았다 저희 단위 내부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한 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사과.정: 추가적으로 작년도 20학번 대상 새내기 지원 비용이 사용될 때도 중운위의 합의 없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동결을 요청한다고 한들 그게 내년까지 과연 보존이 돼서 학생 대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서 저희도 사실 올해 안에 21학번 대상 예산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긴 하다.

부총: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아직 풀어야할 의문과 문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전체에 대해서는 결론이 내리기는 힘들 것 같고 논의가 계속 돌고 반복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개별단위 사용가능성을 열어 둘 것인가 아니면 개별단위 사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 정도만 정하고 제가 오늘 말씀해주신 사항을 모아서 주무부서의 좀더 확실한 대답을 들어와서 다음 주에 논의를 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회의 진행,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회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다음에 개별 단위 사용은 아예 안에서 제외를 할지 아니면 개별단위 사용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에 대한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약학.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20년도 신입생 대상으로 동결해서 이어가 달라고 한 게 아니었는지? 지금 동결 얘기가 다시 나와서 여쭙본다.

부총: 20학번 예산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는 못하고, 그것도 알아봐야겠다. 다만 20학번 예산이 중도에 학생회와의 협의 없이 사용된 바가 있는 것 정도로 알고 있다.

사범.정: 사범대도 처음에 의견 드린 거는 개별단위 집행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선택지가 세 개고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진행이 조금 힘들어진 것 같은데 저희는 개별단위 집행이 힘들어지더라도 집행을 할 수 있다면 중앙 집행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 저희는 개별단위 집행을 진행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다면 중앙 집행으로라도 집행하는 것에 의견을 내겠다.

부총: 다른 단위도 의견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약학.정: 저희도 공대처럼 어차피 개별단위 집행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 같지 않고 결국 선택지가 중앙 집행 이랑 미집행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중앙 집행은 메타버스로 좀 사실 아무도 접하지 않았으니까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차라리 미집행 쪽이 낫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단순히 미집행 했다고 해서 예산을 동결한다기보다 항목을 조금 부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용도를 바꿔서 예산을 다른 데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학생 경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각 단위별로 행사 하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예술.정: 예술대학도 지금 개별집행을 선택지에서 배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

인문.정: 일단 인문대학은 개별단위 집행을 우선으로 생각했지만, 개별단위 집행이 어렵다면 중앙단위 집행을 할 용의는 있다. 그런데 과연 중앙단위 집행을 했을 때도 중앙단위 집행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중운위가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사실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보았을 때 그것이 사실 의문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이 예산을 예산팀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보존을 시켜서 내년까지 이 예산을 동결시켜서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라고 저희는 생각한다.

사범.정: 사범대도 완전한 동결이 가능하다면 인문대 학생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집행이 상황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하는 것, 만약 동결이 된다면, 집행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

경경.부: 경경대도 우선 인문대 입장에 동의한다. 완전한 동결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부총학생회장님께서 초반에 말씀해주셨던 용도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한지 그것도 확실하게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부총: 대부분의 의견이 완전 동결이 가능하다면 완전 동결을 하고, 불가능하다고 하면 용도변경이나 만약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중앙 집행으로 올해 안에 처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덧붙여주시길 바란다.

통공.정: 지금 논의되는 내용이 이 돈을 내년으로 넘기자는 말인지?

부총: 완전 동결이 가능하다면 넘기자는 의견이 있었다.

통공.정: 일단 좀 더 생각해보겠다. 사실 예산을 넘기는 건 작년에도 저는 이렇게 끝났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생각 정리해보겠다. 죄송하다.

부총: 당장에 동결이라든지 세부적인 방안까지 말씀해주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일단은 앞으로의 논의에서 개별단위 집행을 선택지에서 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나 혹은 별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면 일단 제가 주무부서에 알아본 다음에 나머지 선택지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한번 더 확인하겠다. 개별단위 집행을 논의 내용에서 제외하는 데에 있어서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오늘 수합된 논의 사항 같은 경우는 주무부서에 제가 한 번 세부적으로 물은 후에 다음 주에 한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다. 양해를...

사과.정: 사과대 의견이 있다. 주무부서에 논의함과 동시에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중운위에 있는 단과대 단위는 총 10단위인데 10단위 중에서 개별집행이 불가능한 단위들과 똑바로 집행을 하고 싶은 단위들을 모아서 5,6단위 정도 따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단위는 개별집행을 하는 방향이 어떨지 마지막으로 의견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사실 아까 말씀했던 것과 동일하게 21학번 대상 인당 6만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 예산이 온전히 새내기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어쨌든 저희가 모두 목표하는 바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동시에 개별 집행을 하기 어려운 단위가 최대한 부담 없이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학생회 집행부 내에서 다시 논의를 해주시면 어떨지 의견 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단과대마다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총학생회에서 중운위의 각 사정을 고려해서 재고해 주시면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린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바는 사실 예산팀에서 개별 집행을 막은 게 아니다. 예산팀은 사실 단가만 통일하면 어떤 단위가 어떤 예산 처리에 사용을 하든 단가만 통일하면 괜찮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중운위 내부에서 개별 집행을 아예 원천 안 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보다는 총학생회에서 중앙운영위원회 사정을 고려하셔서 다시 한 번 재고해보시면 좋겠다는 것이 의견이다.

부총: 일단 집행부에서 이 주제를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드린 것은 제 개인 의견이고, 어쨌든 개별 집행 건에 대해서도 알아볼 사항이 남았기 때문에 죄송하게도 오늘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방금 사과대에서 말씀하신 것까지 제가 주무부서에도 알아보고 집행부에도 의견을 구한 다음에 되도록이면 다음 주 회의에서는 조금 더 명확한 안을 내도록 하고 오늘 안건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혹시 다른 의견이나 안건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 한번만 다시 확인 받고 싶은 게, 그럼 다음 주에는 주무부서의 어떠한 의견을 받고 그 위에서 총 집행부에서도 논의를 해보시고 그 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인지?

부총: 네. 또 설명드릴 게 있을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더 대답을 드릴 것이 있을지?

인문.정: 저한테 여쭙본 것인지? 답변 다 되었다.

부총: 그러면 이 논의안건은 넘기도록 하겠다.

3. 장학제도 개정 관련 논의

- 성적장학금 10→4% 축소 확정
- 6% 내 장학금 개편 및 신설 논의
- 관련 이전 설문조사 결과 검토

부총: 일단 성적장학금을 4%로 감축하는 안은 거의 확정이 돼가고 있고 나머지 6%의 활용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 안건은 제가 매주 안건으로 상정해드릴 계획이고 오늘은 간단하게 현황 정도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관련해서 지난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 가계곤란 장학금 확대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저희가 이 장학제도 나머지 6% 활용에 대해서 가계곤란 장학금 확대는 전제로 하고 가야 하는 것을 다시 알려드리고 이 소득분위 장학금 확대같은 경우는 5분위 까지만 전액 지원을 하고 말아라라는 의견이 원안 유지 다음으로는 가장 많았다. 그다음에 추가로 장학금을 개편하거나 신설하는 문제는 원안유지를 제외하고 본다면 복지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법, 그다음에 성적과 비교과를 산입하는 장학금을 확대하는 안에 대한 의견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으로 성적과 가계소득을 일정부분 동시에 반영하는 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나머지는 응답 비율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았다.

약학.부: 약학대학 여쭙보고 싶은 게 복지 장학금은 정확히 어떠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부총: 복지장학금은 소득분위를 비롯해서 가계나 혹은 개인에 대한 어려움을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장학금이다. 그러니까 저희 보통 외부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다음에 그 지급 대상자와 면접 등을 거친 후에 장학금 지급 인원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하는 학내 장학금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복지 장학금은 저희 총학생회 내부에서는 인권복지위원회에서 함께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인복위 관련 게시물을 참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혹시 답변이 되셨는지? 네 감

사하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가계곤란 6%를 가지고 설문조사 응답자분들의 의견은 가계곤란 장학금은 5분위까지만 확대해라 그다음에 나머지 장학금을 건드릴 거면 복지 장학금을 늘리고 혹은 성적과 다른 기준을 산입해서 뭘 만들 거면 가계소득 보다는 비교과와 같은 활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라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이다. 그래서 오늘 처음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오늘은 별도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겠고 다음 주에도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 회의를 오실 때는 그 6%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린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방안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거나 혹은 단운위 논의를 거치신 다음에 다음 주 회의에 참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안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혹시 질문이 있는데 복지 장학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만 더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부총: 복지 장학금은 일단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제도이고 장학금 지급의 기준은 소득분위, 그다음에 성적 일부가 산입된 다음에 이제 그 학생이 본인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쓰게 된다. 그 증명서에서 반영이 되는 기준은 예를 들면 가정의 형태, 한 부모 가정과 같은 가정의 형태 혹은 최근에 파산이나 실직을 해서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 이 외에 학생 개인이 그 본인이 소득 등의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할 때 그 이유 등을 제출을 하면 주관부서에서 정상적으로 해당 자료나 학생이 낸 사유서를 평가한 다음에 장학금을 지급할 학생을 선발을 한다. 그래서 그 선발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복지 장학금이다.

약학.정: 약학대학 질의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결국에 소득분위를 본다는 의미는 아닌지? 그래서 사실 따지를 걸러는 건 아니고 결국에 주무부처에서 원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주무부처에서 결국에 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조금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결국에 원하는 방향이 있는 것 같다. 결국에 복지 장학금으로 한다 해도 결국 소득분위를 본다는 거 해서 분위별로 이제 장학금을 주게 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무부처에서는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걸 지향하는지 조금 알고 싶다.

부총: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일단 표에 있는 설문 결과는 주무부서의 의견이 아니고 저희가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이다. 주무부서는 당연히 소득분위 장학금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을 선호하고 다만 이 주제에 대해서 주무부서랑 중운위랑 몇 차례 의견차와 논의를 거치면서 6%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열어놓고 그 학생 대표자들의 논의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게 현재 지금 주무부서와 타협을 본 의견이다. 그래서 주무부서가 원하는 방향성은 당연히 소득분위 확대이나 그게 어떤 논의의 전제처럼 깔려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술.정: 그 복지 장학금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본인이나 가족 관련해서 질병이나 사고, 장애가 있는 분이 이제 심사 기준에 좀 적용이 강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단위들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판단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

부총: 복지 장학금 관련해서는 학교 홈페이지나 인권복지위원회의 페이지에도 관련한 홍보나 설명이 기재가 되어있어서 참고를 하셔도 좋고 가장 큰 요지는 다른 장학금과 다르게 정성평가를 해서 지급한다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이다. 혹시 더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란다.

통공.정: 공대 학생회장인데 이게 사실은 다음 주에 말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원래 근본적으로 성적 장학금은 자동적으로 지급해주는 장학금이었다. 근데 말씀하시는 복지장학금은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찾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 장학금이다.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수요 자체가 규모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 장학금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많이 내봐도 절대 그 수요가 기존의 성적장학금만큼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결국에 저는 저희가 어떤 의견을 내도 학교 측이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흘러갈 것 같아서 차라리 학교측이 원하는 방향을 확실하게 듣고 다음 주에 회의를 하면 좀 회의가 더 잘 진행될 것 같다. 어차피 그렇게 생각해서 이미 감소로 때려놓고 말 들어준다 하는 것도 사실...여기까지 하겠다.

부총: 일단 주무부서의 의견을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주무부서에 그 다음 주에도 나머지 6%

개정에 대한 의견을 여쭙보겠다. 보겠는데 일단 지난번에 성적장학금 감축처럼 안을 정해놓고 저희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상황이다. 이 6%같은 경우는 그 주무부서에서도 뭔가 설정해놓은 안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고 저희한테 최대한 논의를 맡긴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 논의하고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는 것 정도로 설명을 보충하겠다.

4 기타안건

상정된 안건 외에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불법카메라 탐지조사 단위별 시행일시 확정

8월 4일 오전11시 관련 강연 진행 알림

부총: 기타안건이다. 카카오톡에 이미 공지를 드렸습시다만 지금 화면상에 나와 있는 일정에 대해서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보다는 개인톡으로 주시고 없으시다면 오늘 중으로 개인 톡으로 저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없으시다면 오늘 중으로 확정을 하도록 하겠다. 준비한 안건은 모두 끝났고 별도로 의견이나 질문이나 안건 상정하고 싶으시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약학.정: 약학대 별건 아닌데 불법카메라 탐지기 대여를 10시 말고 조금 늦게 대여 받을 수 있는지?

부총: 국장님께 여쭙보겠다. 혹시 원하시는 시간대가 있으시면 같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약학.정: 10시 보다는 11시쯤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탐지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10시는 너무 조금 이른 것 같기도 해서 말씀드려 본다.

부총: 네 담당 국장님께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사과.정: 질의 있는데 혹시 2학기 리더스 포럼 일정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부총: 아직 크게 논의된 바는 없다. 논의 해봐야 한다. 별도의 의견이 없으신지? 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다. 다들 고생하셨고 앞으로 제가 회의 진행하는 한 달 동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폐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